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박 미 희

(서울대학교)⁺

변 금 선

(서울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시간 배분 경향을 분석하였다. 중고령자의 생활시간배분 경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급노동과 더불어 가사활동, 사회참여, 여가시간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생활시간 배분경향이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중고령자의 시간배분 경향은 유급노동시간의 점진적 감소와 가사노동 및 수동적 여가의 증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라 상이하게 분화되고 있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른 유급노동시간의 감소가 급격히 나타나고 여가시간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 연령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가 완만하게 나타났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라 가사와 돌봄활동을 감소시켰지만, 생산활동시간 총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고령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령자를 단일집단으로 간주하는 획일적인 접근을 탈피하고, 고령화라는 변화를 겪는 이들이 놓여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시간배분, 시간사용, 중고령자, 사회구조적 층화, 토빗분석

* 본 논문은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사회변화방향』이라는 주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 보건복지부 후원,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주최한 2012년 제2회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심사과정에서 세심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미처 보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필자들에 있음을 밝힌다.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대에 따라 개인의 생활시간 배분경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혀냄으로써 실효성 있는 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 정부는 곧 도래할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5년마다 마련하고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차원의 접근은 기본적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 즉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력 부족이나 성장기반 약화, 사회보장체계 붕괴, 국가 경쟁력 약화와 같은 거시 구조적 차원의 문제와 충격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고령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며 이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더욱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생애과정 중 노년기의 단계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년기에서 이들이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변화의 특성과 그것의 요인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애과정 중 노년기로의 전환은 유급노동에서 벗어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유급노동의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삶의 대부분을 채우던 노동시간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감소된 시간을 다른 활동으로 채운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줄어든 유급노동 시간에 행해지고 있는가? 그로 인해 각 개인의 삶의 구조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 즉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은퇴, 노화 등)속에서 개인의 일상(생활시간)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또한 인간의 삶은 경제활동 여부, 은퇴여부라는 단순한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성을 지니기 때문에, 노년기 삶의 변화에 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화 사회에서 다양하게 분화되는 노인, 변화하는 노인의 관점에서 45세 이상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년기 생활시간 배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생활시간 연구는 일상생활의 내용을 시간적으로 파악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의 문제와 삶의 질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특정 활동에 배분하는 시간의 양은 개인의 능력, 선호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박수미 외, 2005), 시간연구를 통해 개인차원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노년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대한 일부 연구는 한국 노인의 생활시간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한다(김

1) 2000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에 진입한 이후, 2018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14% 이상)로 진입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노인인구 20% 이상)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11).

진욱, 2006; 이신숙, 2011; 현재은·권혁주, 2012). 이 연구들은 노인이라도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여가시간이 증대함에 따라 노년기에 ‘어떻게 여가시간을 보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첫째, 생활시간 중 특정 활동, 즉 여가활동 혹은 생산 활동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시간간의 관계성을 고려한 시간배분의 전체적 경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둘째, 연구대상에 있어서 노인과 비노인을 나누거나(김진욱, 2006), 초기 노년기로 대상을 한정하였다는 점(현재은·권혁주, 2012)에서 은퇴와 노화로 대표되는 노년기 삶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활동시간의 배분경향에서 연령증가와 사회구조적 층화의 상이한 작동방식을 고려하지 못하여 현실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년기에서 노년기, 노년기에서 초고령기로의 변화를 겪는 이들의 시간배분경향을 확인하기 위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배분을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급노동과 여가활동을 포괄하여 총체적인 시간배분의 경향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생활시간배분의 상이한 경향과 그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해 시간배분의 연령, 사회구조적 층화,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검토

1) 생활시간 연구의 주요 쟁점

생활시간에 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차승은, 2008:3-4). 첫째,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각 활동 시간간의 관계성은 어떠한가? 둘째, 활동시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여기서는 상기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각 쟁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1) 활동시간의 관계성, 총체성

최근 일상생활 연구의 쟁점 중 하나는 각 활동시간 사이의 관계, 그리고 개별 시간간의 균형의 문제이다(오만석 외, 2005; 차승은, 2008:3 재인용). 이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시간이 가지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간으로 총량이 동일하고 절약이나 저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데(문숙재, 1996; Li and Hung, 1997), 시간의 이러한 속성은 어떤 활동영역에 시간을 추가 배분하게 되면 다른 활동영역에서의 시간 감소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Douthitt et al., 1990; 유소이·최윤지, 2002: 55-57에서 재인용).

이처럼 생활시간의 배분은 하위 활동영역 사이에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시간의 증가 혹은 감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생활시간의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중

고령자 생활시간연구는 개별 활동시간(특히 여가,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춰 그것의 분포와 그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보인다(유소이·최윤지, 2002; 이윤정·정순희, 2004; 김진욱, 2006; 현재은·권혁주, 2012). 이러한 연구는 하위 활동별 시간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하루의 일상이 개별 활동으로 분리되고 그 속에서만 파악이 되고 있어 시간배분의 증감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총체성의 관점에서 개인의 하루 전체가 어떻게 구조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2) 개별 활동의 분류

개인의 24시간을 어떤 활동으로 분류할 것인가는 시간연구에서 오래된 쟁점이다. 최근의 경향은 노동과 비노동(여가)의 이분법적 분류에서 탈피하여 연구자들마다 연구의 목적과 주된 대상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구분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두드러진다. 이로 인해 연구간에 활동분류에서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가사노동과 참여 및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다.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분석한 김진욱(2006)은 생산활동을 경제적 생산활동과 사회적 생산활동으로 구분하고, 사회적 생산활동에 참여 및 봉사활동, 보살핌노동을 포함시킨 반면 가사활동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한편 정순희(2005), Fast 외(2006), Burr 외(2007)는 생산적 활동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으로 구분하고 무급노동에 가사노동, 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을 포함하였다. 참여 및 봉사활동도 적극적 여가로 분류한 연구가 있는가 하면(현재은·권혁주, 2012; Gauthier and Smeeding, 2000:2003:2010), 생산적 활동으로 분류한 연구도 있다(정순희, 2005; 김진욱, 2006; Burr et al., 2007).

이러한 상이한 활동분류는 궁극적으로 생산적 활동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노년기의 24시간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활동부분(사회적 활동, 생산적 활동 등)을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는 24시간 전체를 분석하므로 쟁점이 되는 생산적 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가 필요하다.

Herzog 외(1995), Klumb와 Baltes(1999)는 생산적 활동을 금전적 보상과는 무관하게 '사회에 기여하는' 모든 가치 있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에 따라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생산적 활동에 취업을 통한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활동(가사활동, 돌봄활동, 자원봉사활동, 시민참여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는 생산적 활동을 경제적 의미로만 좁혀 생각하는 것이 명확하지만 노인의 생산적 활동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에 근거한 것이다(Bass et al., 1993; 홍현방, 2005: 211에서 재인용). 본 연구도 광의의 생산적 활동 개념이 중고령자의 생산적 활동을 이해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가사노동과 자원봉사를 모두 생산적 활동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2) 중고령자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동향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국내외의 연구는 1960년대에 제시된 '생산적 노화'와 '활동적 노화'의 개념에서 비롯되었다(Gauthier and Smeeding, 2003). 이로 인해 노인의 생산활동에 초점을 맞추거나(정순희, 2005; 김진욱, 2006; Klumb and Baltes, 1999; Fast et al., 2006; Burr et al., 2007),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대부분이다(박미석·이유리, 2003; 이윤정·정순희, 2004; 현재은·권혁주, 2012; Chatzitheochari and Arber, 2011).

일부 연구는 고령자의 생활시간 전반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배분의 전체적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와 유사하다(박민자·손문금, 2005; 이신숙, 2011; Gauthier and Smeeding, 2003; Krantz-Kent and Stewart, 2007; McKenna et al., 2007; Gauthier and Smeeding, 2010). 그러나 이 연구들은 대부분 노인만을 대상으로 생활시간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주되게 관심을 갖는 노년기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생활시간 배분에 대한 함의는 제공해주지 못 한다. Gauthier와 Smeeding(2003), Krantz-Kent와 Stewart(2007)의 연구만이 각각 45세 이상과 5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9개 국가의 중고령자의 시간 배분을 분석한 Gauthier와 Smeeding(2003)에 따르면, 국가 간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의 감소와 수동적 여가시간의 증가가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가사노동과 적극적 여가시간은 연령별, 성별,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미국의 5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시간을 분석한 Krantz-Kent와 Stewart(2007)의 연구에서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의 감소, 수면시간 및 수동적 여가시간의 증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른 이러한 차이는 성별과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달라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두 연구는 각 활동시간별 평균을 단순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차이가 과연 유의미한 차이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45세 이상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생산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김진옥(2006)의 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비노인과 비교한 노인의 생활시간이 보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개인유지시간의 증가, 유급노동시간의 감소, 무급노동시간의 증가, 수동적 여가시간 증가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65세 이상을 노인집단으로, 15~64세 이하를 비노인집단으로 구분함으로써 광범위한 연령에 따른 노인집단내, 비노인집단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비교하였기 때문에, 노년기로의 이행과정에서의 생활시간배분 경향을 구체적으로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편 중고령자의 시간배분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성, 연령, 계층적 특성(교육수준, 소득수준), 경제활동 특성, 가구특성(미취학 자녀유무, 가구원수), 혼인상태 등이 노인의 시간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진옥, 2006; 이기영 외, 2006; 차승은, 2008; 현재은·권혁주, 2012; Gauthier and Smeeding, 2000; Gershuny, 2003; Brandon and Temple, 2006). 국내연구결과에 따르면, 먼저 성별에 따른 생활시간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령남성은 유급노동과 수동적 여가활동에 시간을 주로 보내고 고령여성들은 가사활동, 보살핌 노동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박민자·손문금, 2005; 김진옥, 2006). 계층적 특성을 대표하는 교육수준에 따른 시간배분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생산활동 참여확률이 낮고(김진옥, 2006), 학습·종교·문화·스포츠 등의 개인적 성격의 여가활동을 많이 하지만, 사회참여 활동시간은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현재은·권혁주, 2012). 이외 혼인상태와 가구유형(농가/비농가), 취업특성에 따른 차이도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농가의 경우 농업의 특성상 은퇴가 없고, 농촌지역의 고연령화 현상으로 인해 비농가와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기영 외, 2006).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는 각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만을 파악한 한계가 있다. 실제로 개인이 일상 생활을 구조화하는 데는 여러 요인들이 동시에 작동하고, 그 작동방식 또한 상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일례로 Crimmins 외(1999), Gauthier와 Smeeding(2010)은 노인의 생활시간 배분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는 건강상태나 소득수준과 결합되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은 노후에 돌봄에 대한 책임이 커지면서 남성과는 달리 활동적 여가시간을 증가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었다. Krantz-Kent와 Stewart(2007)도 연령구간별, 성별, 경제활동상태별 시간배분이 상이함을 보여주면서, 중고령자의 시간배분 증감에는 연령보다는 경제활동상태와 성별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각 요인들의 독립적 효과만을 파악하는 것은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간의 총체성과 관계성을 고려하기 위해 유급노동뿐만 아니라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활동, 사회참여, 여가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중고령자의 생활시간배분을 확인하였다. 또한 노년기로의 전환이라는 연령의 변화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의 층화를 확인하기 위해 생활시간 배분에 대한 연령효과와 사회구조적 층화효과, 그리고 둘 간의 상이한 작동방식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일상생활 전반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즉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연령대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 둘째, 이러한 생활시간 배분 경향이 연령증가에 의한 것인가? 사회구조적 층화에 의한 것인가? 혹은 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인가?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45세 이상 중장년층과 고령자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연구는 60세나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라는 생애과정의 전환에 있어서 생활시간 배분의 변화를 확인하는데 있으므로 대상을 중장년층인 45세 이상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평균 퇴직연령이 57세, 실제 은퇴연령이 53세, 평균은퇴연령 68세(이신숙, 2011:312; 방하남 외, 2011: 74)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퇴직 및 은퇴전과 후를 포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²⁾. 고령자의 연령대에 따른 이질성을 고려해 연령을 5세 급간으로 구분하였으며, 75세 이상은 하나의 급간으로 분류하였다.

2) 본 연구에서는 방하남 외(2011)의 연구에 따라 은퇴와 퇴직을 구분하였다. 퇴직은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의미하고, 은퇴는 경제활동유형에서 완전히 벗어남을 의미한다.

2)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데이터를 사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이 하루 24시간을 어떤 형태로 보내는지를 시간일지(time-diary)를 사용해 조사한 것으로, 노년기 생활시간 배분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³⁾. 본 연구에 사용된 시간일지는 만 45세 이상 연령 인구의 시간일지로 총 17,906일이며, 자료에 관한 개요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생활시간조사 개요

기간	조사규모	조사기간	조사방법
2009년	8,090가구 20,263명 40,526일의 시간일지	1차 3월12일~23일 2차 9월9일~22일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응답자당 2일씩 시간일지 기입

<표 2>는 변수의 정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삶의 변화, 전체적인 삶의 조망에 있으므로 24시간의 모든 시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분하였다. 특히 유급노동이라는 시장경제에서의 활동에만 국한되었던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비공식·무급노동영역인 가사노동과 돌봄활동을 사회적 생산활동에 포함하였다. 여가는 능동적 여가와 수동적 여가로 나누었는데, 능동적 여가는 기존 연구의 기준을 토대로 여가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쌍방향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유지/기타에는 수면, 식사 등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필수 활동이 포함된다. 사회구조적 층화는 선행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유형, 경제활동유형을 활용하였다.

3) 생활시간조사 자료는 1999년부터 5년 주기마다 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대상은 만 10세 이상 전국민으로, 표본추출을 통해 대상을 선정한다. 주의할 점은 시설에 거주하는 가구원, 가구원 전체의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 심신장애나 치매 등의 사유로 스스로 시간일지를 작성하지 못 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거가 매우 불안정한 빈곤가구, 요양시설 입소 노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인이 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에 편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힌다.

〈표 2〉 변수의 정의

구분	변수명	속성 및 단위	
종속 변수	경제적 생산활동 시간	유급노동	고용된 일, 자영업
		무급노동	무급가족종사일, 농림어업무급가족종사일, 구직활동 등
	사회적 생산활동 시간	가사노동	가정관리, 집관리, 관련 물품구입 등
돌봄활동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등 가족 돌봄	
사회참여		이웃돕기, 지역공동체 활동, 사회참여 활동, 자원봉사	
여가	능동적여가	교제, 학습, 종교,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취미	
	수동적여가	대중매체, 담배, 아무것도 안하고 쉬기	
독립 변수	성별	남=0, 여=1	
	교육수준	초등학교 졸업 이하=0, 중학교 졸업 이하 =1 고등학교 졸업 이하=2, 전문대학교 졸업 이하=3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0, 배우자 없음(이혼·미혼·사별)=1	
	가구유형	비농가=0, 농가=1	
	경제활동유형	풀타임(경제적 생산활동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0 파트타임(경제적 생산활동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1 30분미만(경제적 생산활동시간이 주 30분 미만인 경우)=2	
상호작용항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유형, 경제활동유형 더미변수 X 연령(비율)		
통제 변수	거주유형	자가=0, 전세=1, 월세=2, 무상=3	
	가구원 수	가구내 구성원의 수(명)	
	요일유형	주말=0, 평일=1	

(2) 분석방법

본 연구는 기술통계와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을 이용해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의 양상을 확인하였다.⁴⁾ 우선 기술통계를 이용해 연령대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활동별 생활 시간량 평균을 비교하였다. 이어 이러한 시간배분의 사회구조적 층화가 고령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령변수와 각 사회구조적 층화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4) 토빗회귀분석은 특정 값에 의해 절단된(censoring) 자료에 적합한 분석방법이다. 생활시간자료는 활동시간의 특성상 0의 값이 많은 좌측 절단된 자료이다. 0의 값이 적을 경우, 토빗회귀분석 결과는 OLS 회귀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4. 분석결과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표 3〉은 연구대상의 주요 특성이다. 첫째, 남성은 46.9%, 여성은 53.1%로 여성이 다소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체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비중이 증가해 75세 이상의 경우 여성이 비중이 6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혼인상태의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78.3%, 이혼·사별·미혼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비중이 증가해 75세 이상의 경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 이상(57.1%)을 차지했다. 셋째,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35.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31.9%), 중학교 졸업 이상(17.8%),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14.5%)이 뒤를 이었다. 연령이 낮을수록 고등학교 졸업 이상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높아지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학교 졸업 이상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교육수준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가구유형에 있어서 농가는 13.4%, 비농가는 86.6%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높아짐에 따라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상태의 경우 전체의 44.2%가 40시간 이상의 풀타임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풀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45-49세의 경우 풀타임 근로자가 69.1%에 달하는 반면 75세 이상은 6.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파트타임 근로자의 비중은 15.9%로 나타났으며, 풀타임 근로자의 비중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과는 달리 파트타임 근로는 64세까지는 감소하다가 이후 74세까지는 증가하고, 75세 이상이 되었을 때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분미만 근로자의 비중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5) 70세 이상 노인 중 약 9.3%가 주 40시간 이상의 경제적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령대							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성별	남성	2,040 (49.99)	1,578 (48.40)	1,116 (48.33)	1,023 (49.41)	837 (46.01)	750 (43.85)	672 (36.40)	8,016 (46.89)
	여성	2,042 (50.01)	1,683 (51.60)	1,193 (51.67)	1,048 (50.59)	982 (53.99)	960 (56.15)	1,174 (63.60)	9,080 (53.11)
혼인상태	유배우자	3,632 (88.98)	2,833 (86.87)	1,965 (85.13)	1,677 (81.00)	1,434 (78.85)	1,126 (65.88)	792 (42.94)	13,460 (78.73)
	이혼·사별·미혼	450 (11.02)	428 (13.13)	343 (14.87)	394 (19.00)	385 (21.15)	583 (34.12)	1,053 (57.06)	3,636 (21.27)
교육수준	초졸이하	248 (6.08)	558 (17.12)	682 (29.53)	904 (43.67)	1,059 (58.21)	1,180 (69.03)	1,476 (79.97)	6,107 (35.72)
	중졸이상	575 (14.09)	765 (23.47)	594 (25.75)	436 (21.07)	343 (18.83)	203 (11.89)	134 (7.24)	3,051 (17.84)
	고졸이상	2,135 (52.31)	1,338 (41.02)	713 (30.90)	526 (25.40)	326 (17.90)	238 (13.91)	182 (9.84)	5,457 (31.92)
	전문대졸이상	1,123 (27.52)	600 (18.39)	319 (13.83)	204 (9.87)	92 (5.05)	88 (5.17)	54 (2.95)	2,481 (14.51)
농가여부	비농가	3,916 (95.93)	2,955 (90.61)	2,046 (88.61)	1,702 (82.18)	1,401 (77.01)	1,271 (74.37)	1,521 (82.42)	14,811 (86.63)
	농가	166 (4.07)	306 (9.39)	263 (11.39)	369 (17.82)	418 (22.99)	438 (25.63)	324 (17.58)	2,285 (13.37)
경제활동 유형	풀타임	2,820 (69.10)	1,965 (60.27)	1,155 (50.03)	794 (38.35)	447 (24.57)	268 (15.66)	115 (6.22)	7,564 (44.24)
	파트타임	466 (11.41)	497 (15.23)	371 (16.06)	335 (16.18)	414 (22.76)	389 (22.78)	243 (13.17)	2,714 (15.88)
	30분 미만 근로	796 (19.50)	799 (24.50)	783 (33.92)	942 (45.48)	958 (52.67)	1,052 (61.56)	1,488 (80.61)	6,817 (39.88)
계		4,082 (100.00)	3,261 (100.00)	2,309 (100.00)	2,071 (100.00)	1,819 (100.00)	1,709 (100.00)	1,845 (100.00)	17,096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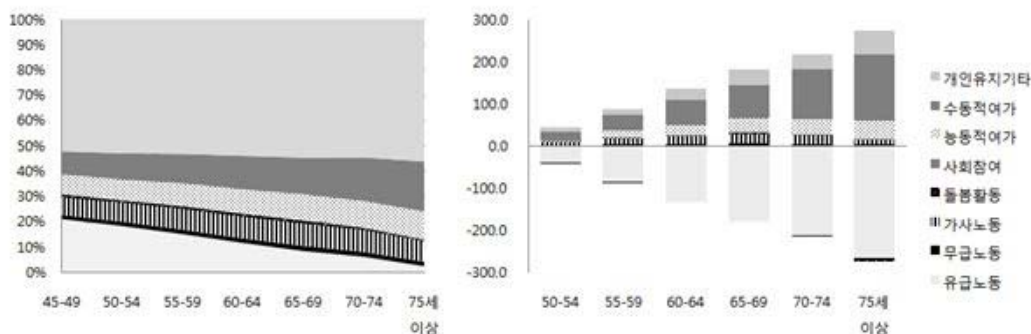
2)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배분 경향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배분 경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대상자 전체의 시간배분을 확인하고, 이러한 시간배분경향이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가구유형(농가, 비농가),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2009년 현재 연령대에 따른 시간배분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좌측⁶⁾). 경제적 생산활동 시간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며, 사회적 생산활동, 여가시간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시간배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45-49세를 기준으로 활동별로 감소한 시간과 증가한 시간을 비교하였다(〈그림 1〉, 우측⁷⁾). 전체 연령대에서 감소한 유급노동시간의 대

6) 그림에 대한 평균시간값 원자료는 교신저자를 통하여 제공 가능함.

부분이 수동적 여가에 재분배되었으며, 개인유지와 가사노동이 뒤를 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연령대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사용한 시간은 큰 변화 없이 전체 연령대에서 매우 미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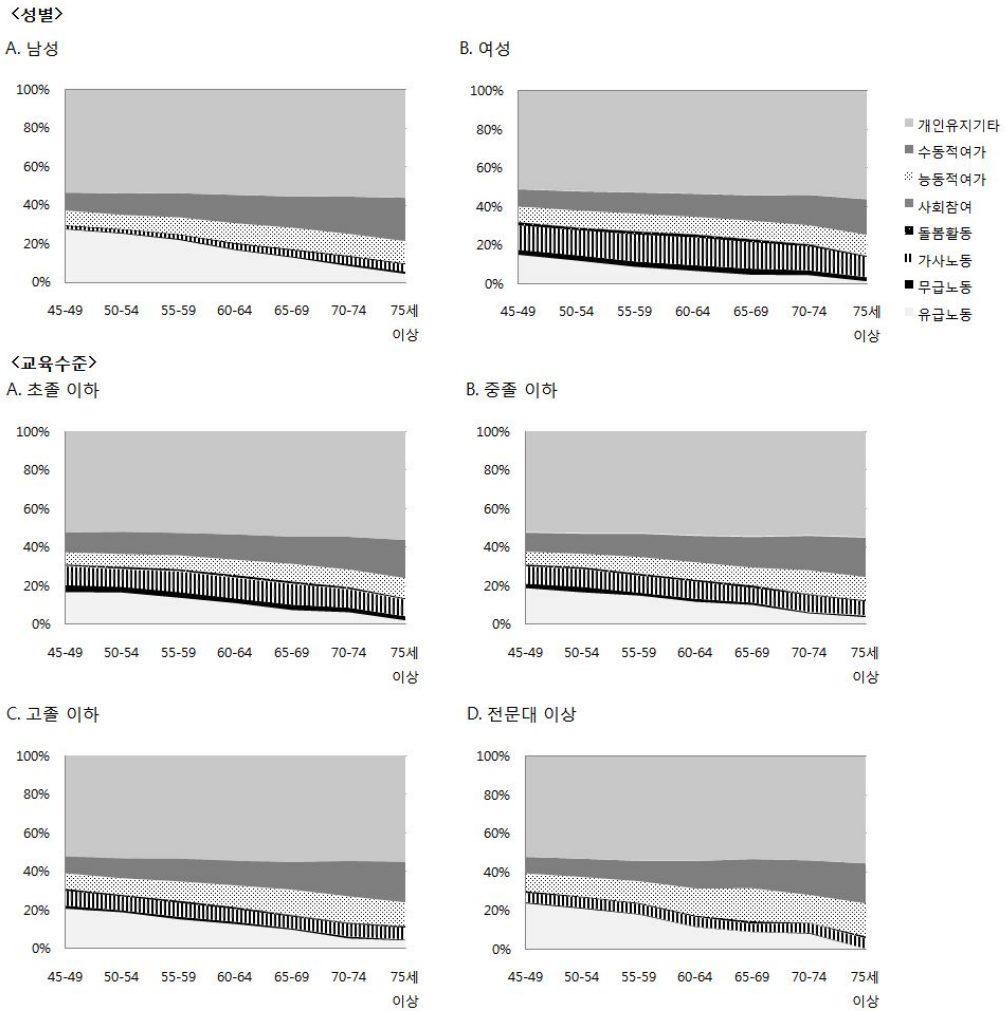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대별 시간배분(단위:%)

〈그림 2〉는 성별과 교육수준에 따른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배분양상을 보여준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시간배분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경제적 생산활동, 여가, 개인유지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은 남성에 비해 보수를 받지 않는 생산활동(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활동, 사회참여)인 사회적 생산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며 생산활동 총 시간량(경제적 생산활동+사회적 생산활동)을 고려할 경우, 여성의 생산활동 시간이 남성에 비해 더 많았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남성은 여가 및 개인유지시간을 급격히 증가시키지만, 여성은 일(유급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양과 질이 모두 취약한 여가생활을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60세 이전의 중고령자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대에 진입하면서 전문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유급노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학력집단(중졸~고졸)의 유급노동시간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줄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가시간에서도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60대의 전문대 졸업 이상 고학력자는 다른 집단에 비해 능동적 여가에 배분하는 시간이 한 시간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참여활동과 같은 사회적 생산활동의 시간량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7) 〈그림 1〉의 우측 도표에서 Y축의 (-)부분은 감소한 활동의 시간을, (+)부분은 증가한 활동의 시간을 나타내며, 두 영역의 합은 0이다. 생활시간배분의 연령대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연구대상 중 중장년층인 45-49세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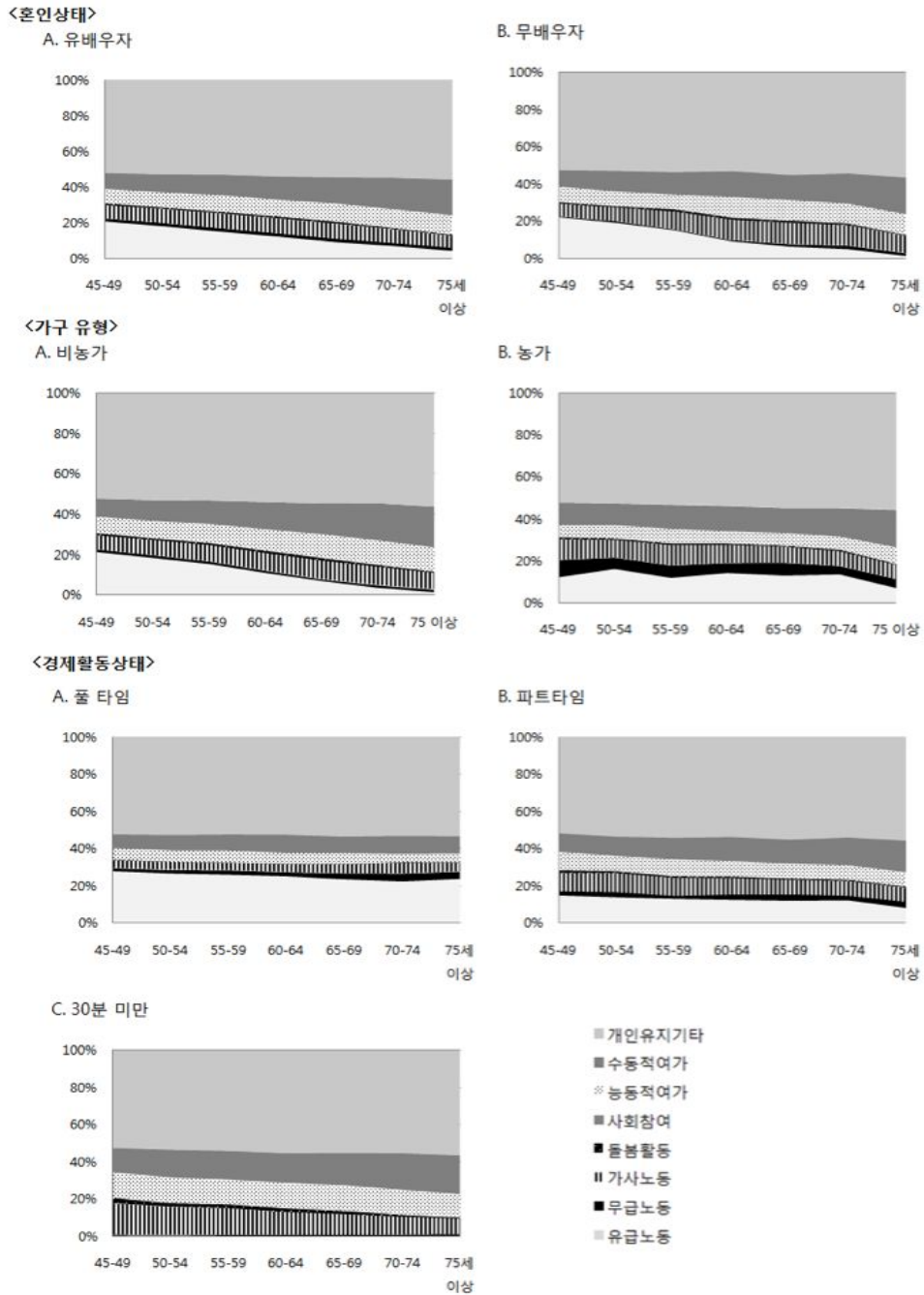


<그림 2> 성별 및 교육수준에 따른 연령대별 시간배분(단위: %)

<그림 3>은 혼인상태, 가구유형(농가/비농가),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배분이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첫째, 혼인상태에 있어서는 유배우자의 경우 경제적 생산 활동 감소 경향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완만하게 줄어드는 반면, 무배우자의 경우에는 다소 가파른 변화를 보인다. 한편 유배우자는 능동적 여가보다는 수동적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았고, 무배우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능동적 여가에 사용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미미하지만 유배우자보다는 무배우자가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농가는 비농가에 비해 무급노동시간이 많고, 능동적 여가활동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농가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이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여 총 생산활동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농가는 유급, 무급, 가사노동시간의 합이 4시간 이상으로 75세 이전까지 생산

활동 시간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림 3> 혼인상태, 가구유형,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연령대별 시간배분(단위:%)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시간배분의 차이는 경제적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시간을 통제했을 때 연령대에 따라 생활시간의 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⁸⁾.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풀타임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개인유지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수동적 여가, 능동적 여가, 가사노동 순으로 배분하였다. 파트타임 근로자는 수동적 여가와 능동적 여가에 대한 시간비중이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다소 낮았고 가사노동과 돌봄활동 비중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분미만 근로자는 대부분의 시간을 수동적 여가와 능동적 여가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많아질수록 능동적 여가 시간의 비중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수동적 여가 시간의 비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사회구조적 층화와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 비교

생활시간의 변화가 연령, 사회구조적 층화,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표 4>, <표 5>이다. <그림 4>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째, 경제적 생산활동 중 유급노동시간은 연령효과, 사회구조적 층화,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유급노동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비농가에서 연령증가에 따라 유급노동시간 감소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의 B-1, C-1, D 참고). 성별은 주효과만 유의미했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유급노동시간 감소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무급노동시간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과 가구유형의 상호작용항 변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그림 4>의 C-1 참고). 여성인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유배우자인 경우, 농가인 경우 무급노동시간이 많으며, 이러한 차이는 연령이 증가해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둘째, 사회적 생산활동 중 가사노동 시간은 60세 이상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가구유형, 경제활동유형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여성보다 남성이, 농가에 비해 비농가가, 풀타임에 비해 파트타임과 30분 미만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이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의 A-1, C-2, E 참고). 한편,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이하의 상호작용항을 제외하고 모두 주효과만 유의미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시간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경향이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편, 돌봄활동 시간에 대한 연령의 주효과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별과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의 교육수준, 30분미만 경제활동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 연령에 따른

8) 경제활동 상태에 따른 시간배분 분석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지위를 확인할 수 없다. 고용지위의 경우, 풀타임 근로자 집단은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준고령이나 초기노년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규직, 풀타임 근로자일 수 있지만 연령대가 높은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에는 초고령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노동을 유지해야 하는 취약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풀타임 근로자의 경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무급노동시간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 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해석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다 정교한 결과는 이후 토빗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겠다.

돌봄시간의 차이가 이들 변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참여 시간은 연령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별, 가구유형, 경제활동유형의 주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비농가에 비해 농가인 경우, 풀타임에 비해 파트타임 그리고 30분 미만 근로자인 경우 사회참여 시간이 많았다. 이는 성별과 가구유형,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사회참여 시간의 차이가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달라지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한다.

〈표 4〉 연령의 증가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생산활동 시간 변화

구분		경제적 생산활동		사회적 생산활동		
		유급노동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활동	사회참여
연령	(45-49세)					
	50-54세	-37.73***	-11.25	0.97	-15.02**	7.52
	55-59세	-106.55***	-4.10	5.60	-0.90	14.60
	60-64세	-215.16***	-22.03	14.56***	9.78	-21.60
	65-69세	-319.74***	-34.61 #	18.79***	17.46*	8.49
	70-74세	-430.88***	-7.72	22.79***	-5.70	35.35
	75세 이상	-622.97***	17.07	27.18***	-15.74	-15.04
성별	(남성)					
	여성	-293.43***	134.68***	225.45***	171.71***	53.96***
교육	(초졸)					
	중졸	155.85***	257.56**	-40.66*	3.19	5.53
	고졸	249.46***	-64.43***	-7.39**	12.10**	2.20
	전대	261.03***	-162.68***	-11.77**	108.91**	-6.28
혼인 상태	(유배우자)					
	무배우자	253.31***	-88.21***	-16.90***	-15.20**	10.29
가구 유형	(비농가)					
	농가	-866.33***	358.50***	90.51***	-7.24	39.42*
경제 활동	(풀타임)					
	파트타임	-	-	110.60***	34.16***	78.31***
	30분미만	-	-	286.80***	118.84***	104.4***
상호 작용 효과	(변수X연령)					
	여성	-	-	-1.06***	-1.86**	-
	중졸	-2.81*	-4.94***	0.77**	-	-
	고졸	-4.53***	-	-	-	-
	전대	-4.68**	-	-	-1.82**	-
	무배우자	-3.37***	-	-	-	-
	농가	15.92***	-65.93**	-1.27****	-	-
	파트타임	-	-	-0.98**	-	-
30분미만	-	-	-3.13***	-0.85*	-	
constant		214.36***	-350.78***	-6.88	-227.79***	-559.08***
_Sigma		336.87***	296.50***	99.69***	117.86***	117.86***
Log Likelihood		-32182.35	-10924.55	-39516.31	-13275.69	-2214.28
센서링 된 사례		9,538	14,510	3,915	13,531	13,531
사례 수				17,096		

주: Robust SE를 사용함.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모든 모형에는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원 수, 주말/평일을 통제함.

〈표 5〉 연령의 증가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 변화

구분		계	능동적 여가	수동적 여가
연령	(45-49세)			
	50-54세	12.00**	1.10	10.78***
	55-59세	21.11***	7.79*	13.22***
	60-64세	25.66***	7.74 #	15.74***
	65-69세	30.24***	14.79**	12.17**
	70-74세	45.66***	9.81 #	31.44***
	75세 이상	47.84***	7.42	35.87***
성별	(남성)			
	여성	-1.23	-24.81***	-13.71
교육	(초졸)			
	중졸	7.09 #	16.64***	-4.87
	고졸	20.78***	41.35***	-13.40***
	전대	-12.42	73.79***	-27.05***
혼인 상태	(유배우자)			
	무배우자	-37.86*	-16.03	10.02**
가구유형	(비농가)			
	농가	-6.61*	-24.38***	10.80**
경제 활동	(풀타임)			
	파트타임	24.68	57.54***	-50.86**
	30분미만	143.25***	160.70***	-8.87
상호 작용 효과	(변수X연령)			
	여성	-1.51***	-	-0.93***
	중졸	-	-	-
	고졸	-	-	-
	전대	0.93*	-	-
	무배우자	0.94**	0.41 #	-
	농가	-	-	-
	파트타임	1.44***	-	1.92***
30분미만	1.69***	-0.59*	2.41***	
constant		254.18***	92.59***	148.16***
_Sigma		136.92***	113.86***	110.77***
Log Likelihood		-52608.94	-46063.50	-49664.16
센서링 된 사례 수		102	1,948	549
사례 수			17,0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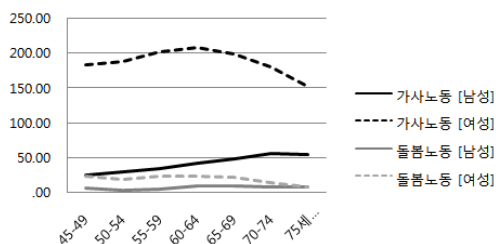
주: Robust SE를 사용함. #, *, **, ***는 각각 .10, .05, .01, .001 수준에서 유의함.

모든 모형에는 주거유형(자가, 전세, 월세, 무상), 가구원 수, 주말/평일을 통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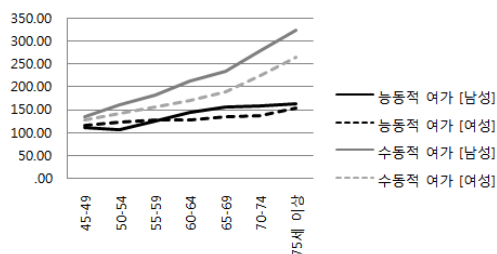
전체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성별, 교육수준, 혼인상태, 경제활동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표 5〉참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가 초졸이하의 저학력자에 비해, 파트타임과 30분미만 근로자가 풀타임 근로자에 비해 연령증가에 따른 여가시간 증가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의 A-2, B-2, D, E 참고) 능동적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혼인상태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수동적 여가시간에 있어서는 성별과 경제활동 유형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유배우자에 비해 무배우자가 연령이 높을수록 능동적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을수록 수동적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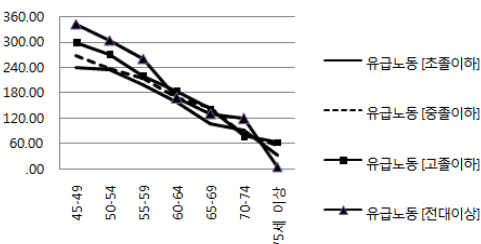
A-1. 연령과 성별에 따른 활동시간(가사,돌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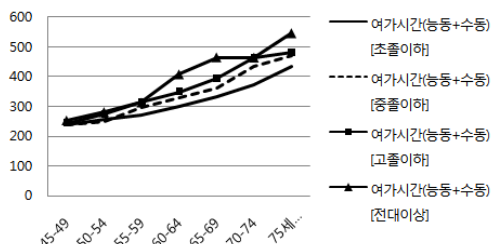
A-2. 연령과 성별에 따른 활동시간(능동적/수동적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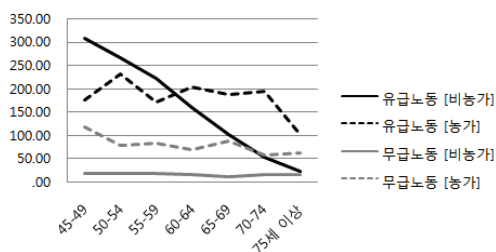
B-1.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유급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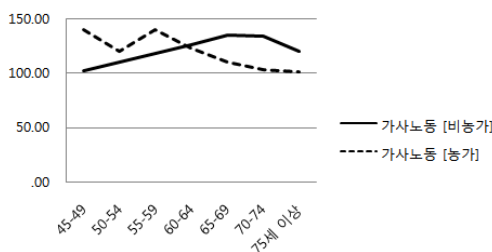
B-2.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여가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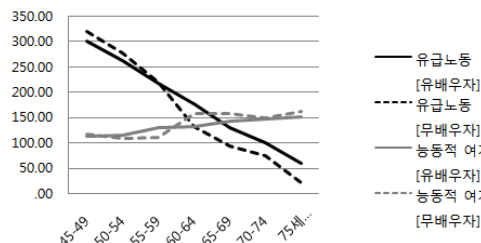
C-1. 연령과 농가여부에 따른 유급 및 무급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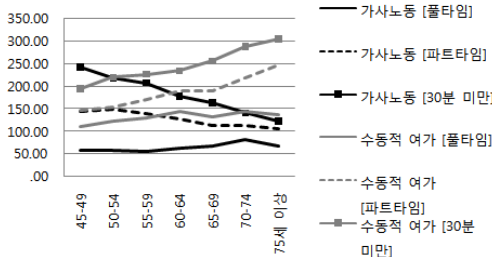
C-2. 연령과 농가여부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D.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른 활동시간



E. 연령과 경제활동에 따른 활동시간



〈그림 4〉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위의 상호작용(단위:분)

한편,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교육수준과 가구유형에 따라서 여가활동에 대한 시간배분경향은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농가에 비해 비농가인 경우, 능동적 여가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으며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유지되었다. 수동적 여가에 대한 주효과는 교육수준과 가구유형 변수의 방향이 능동적 여가 변수와 반대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수동적 여가시간이 감소하고 농가인 경우 수동적 여가 시간이 증가하였다.

5.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노년기 삶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시간배분 차이를 연령, 사회구조적 층화, 그리고 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생활시간 배분은 유급노동시간의 점진적 감소와 가사노동, 수동적 여가의 증대로 설명할 수 있다. 유급노동시간의 점진적 감소는 공식 퇴직연령 전후로 경제활동시간이 급격히 감소하는 서구국가의 경향과 차이를 보이는데⁹⁾,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율과 실질 은퇴연령이 높은 한국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사회적 생산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사노동시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능동적 여가시간은 연령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수동적 여가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의 경우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수동적 여가에 사용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김진욱, 2006; 이신숙; 2011; 현재은·권혁주; 2012). 한편, 사회참여에 있어서는 연령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별과 가구유형, 경제활동이라는 사회구조적 층화 변수만 유의미 했다. 이는 사회참여 시간이 연령에 관계없이 매우 적은 수준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연령증가에 따른 시간배분의 경향은 사회구조적 층화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첫째,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가사노동, 돌봄활동, 수동적 여가에 더 많은 시간을 배분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성은 줄어든 유급노동시간을 가사노동이나 돌봄활동으로 일부 재분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성은 유급노동시간이 남성보다 짧은 대신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생산활동에 참여해 총생산 시간량은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의 이중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취약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

9) Gautier와 Smeeding(2003: 259)은 45세 이상 중고령자의 연령대별 시간배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미국은 45-54세에 비해 55-64에 유급노동시간이 6.3시간에서 4시간, 65-74세에는 1시간으로 감소하며, 네덜란드는 5.5시간에서 각각 1시간, 0.5시간으로 감소했다. 65세 이상 한국 고령자는 하루 평균 1시간 39분을 일을 하여 상대적으로 타 국가(7분~42분)에 비하여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한다. 특히, 한국 남자 고령자의 경우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2시간 14분을 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55분), 영국(25분), 네덜란드(19분), 스페인(12분) 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일에 사용한다(통계청, 2011).

다.

둘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급노동시간을 급격히 줄이고 여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처럼 고학력자의 유급노동시간이 저학력자에 비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은 이들이 공적연금의 수급자일 가능성이 있고,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근로연령대에 충분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역으로 보면, 저학력자들은 고령이더라도 생계 때문에 유급노동시간을 갑자기 줄이는 것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노동의 중단(은퇴)과 이로 인한 생활시간 배분의 재구조화라는 삶의 변화가 특정 집단에 집중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한편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도 감소한 유급노동시간이 사회참여로 연결되지는 않고 여가로 집중되는 경향이 보였는데 이를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셋째, 무배우자는 유배우자에 비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유급노동시간 감소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배우자에는 노인빈곤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독거노인이 포함되므로 65세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유급노동을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다¹⁰⁾.

넷째, 비농가의 경우 근로시간의 감소가 전체연령대와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농가의 경우 연령이 높아지더라도 유급노동시간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무급노동시간을 포함할 경우에는 경제적 생산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가시간에서 농가와 비농가의 차이가 고착화되는데, 비농가의 경우 능동적 여가시간이 농가에 비해 많은 반면 농가는 수동적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 유형에 따른 시간배분 경향은 연령대에 따라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풀타임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연령 증가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역의 활동에 시간을 배분할 여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적 생산활동시간이 짧을수록 능동적 여가와 사회참여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활력있는 노년기를 위한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경제적 생산활동 시간의 축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적 함의 및 제언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가 주는 정책적 함의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이 '노인'이나 '고령자' 중심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한국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간 감소 경향은 외국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으며, 노동시간 감소가 전체 노인집단에 있어서 특정 연령대에 일관된 경향으로 관측되지 않았

10) 이는 배우자 유무가 유급노동 시간량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분석한 기존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다. 김진옥(2006)은 2004년 생활시간데이터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유급노동 참여 확률이 낮았으나, 시간량에 대한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분석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지만, 5년이라는 시간적 격차와 제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연령과 배우자유무의 상호작용 효과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포착하지 못 하였던 혼인상태가 유급노동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 것일 수 있다.

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점진적 은퇴, 즉 유급노동의 점진적 감소가 이미 한국에서 관찰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문제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노동 외 시간을 보다 손쉬운 방법인 소극적 여가(TV시청 등)로 보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활력 있는 노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부터 사회참여 및 적극적 여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의 사회참여활동은 순간적·일회적으로 기획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이소정, 2009), 현재 노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회참여 및 여가프로그램을 연령 통합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다양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고령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경우 감소한 유급노동시간이 여가에 집중적으로 재분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에 종사했던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이 가진 시간과 능력을 사회적 생산활동의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농가나 경제활동유형이 풀타임인 경우에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의 경제적 생산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다수는 고령임에도 생계를 위해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취약 노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연금, 기초노령연금 등의 공적소득보장체계를 내실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노인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이정화·한경혜, 2003), 이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욕구를 고려한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회적 생산활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여성의 경우 유급노동시간은 남성보다 짧지만, 무급노동, 가사노동, 돌봄활동, 사회참여 등 다양한 생산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생산활동으로 구분한 가사노동, 돌봄활동, 사회참여는 대체적으로 생산활동으로써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그 활동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생산활동은 개인차원을 넘어 가족, 지역사회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일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되고 있는 인센티브는 활동의 가치를 반영하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자치단체 소속 시설의 이용료 할인 등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다.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의 수준과 가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시간쿠폰으로 적립하여 이것을 병원비나 교통비, 더 나아가서는 서비스 및 재화를 구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면 여성 및 노인들이 수행하는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부여와 더불어 생계에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¹¹⁾

본 연구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중년기-노년기-초고령기로의 생애 전환과정에서 경제활동의 감소로 인해 개인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이 연령과 사회구조적 층화, 둘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어떻게 상이하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노년기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급노동과 여가활동을 포괄하여 전체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11) 미국의 TimeBanks, CareBanks는 자원봉사활동시간을 '시간'의 형태로 적립하여 병원과 돌봄서비스 이용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성공적 사례로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Lasker et al., 2011).

몇 가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2009년 한 시점의 자료를 이용해 연령에 따른 시간배분을 비교하였다. 생애과정 전환기의 일상의 변화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패널분석이나 코호트 연구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 있다. 2014년 4차 생활시간자료가 공개된다면 제한적으로나마 준코호트 연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간배분의 사회구조적 층화와 연령, 둘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따라서 어떤 요인이 개인의 시간배분을 결정하는지를 밝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에서 포착된 노년기 생활시간배분의 사회구조적 층화를 기반으로 향후 노년기 시간의 분배와 불평등에 관련하여 보다 정교한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 문숙재, 1996, 『생활시간연구』, 서울: 신정.
- 박수미·선보영·김진욱, 2005, 『한국여성의 생활세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미석·이유리, 2003, “한국노인의 여가활동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1(1): 37-48.
- 박민자·손문금, 2005, “고령 여성과 남성의 일상생활: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1: 121-145.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방하남·이성균·우석진·김기현·김지경,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생애와 은퇴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석, 2005,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 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 유소이·최윤지, 2002, “성인남녀의 생활시간 실태 및 결정요인 분석-유급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육아시간 및 여가시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3(3): 53-68.
- 이기영·조희금·김외숙·이연숙·이승미·홍두승·조홍식·김유경·김소영·정수인, 2006, “고령화 사회 농촌 노인의 노동과 여가의 시간배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3): 131-148.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1): 71-91.
- 이신숙, 2011, “은퇴한 노인의 생활시간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2011 제2호: 311-325.
- 이윤정·정순희, 2004, “노인의 여가생활시간 소비패턴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8(1): 101-116.
- 이정화·한경혜, 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 정순희, 2005, “노인의 생산활동수준 및 관련변수의 분석: 한국과 캐나다 비교”, 『한국노년학』, 25(2): 155-170.
- 차승은, 2008, “중년의 일, 가족, 여가시간 배분유형과 유형결정요인: 취업한 기혼남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1): 103-116.
- 통계청, 2011, 『2011 고령자 통계』.
- 현재은·권혁주, 2012, “노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에 대한 시간연구”, 『한국정책학회보』, 21(2): 277-300.
- 홍현방, 2005, “생활활동 수준이 성공적인 노화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9: 203-235.

- Bass, S. A., Caro, F. G., and Chen, Y., 1993, *Achieving a Productive Aging Society*, Westport, CN: Auburn House.
- Brandon, P. D., and Temple, J. B., 2006, "Determinants of time allocation combinations among non-employed older persons: Evidence from Australian time use diaries", *Australian Journal of Social Issues*, 41(1):7-26.
- Burr, J. A., Mutchler, J. E., and Caro, F. G., 2007, "Productive activity clusters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tersecting forms and time commitments", *Journal of Gerontology*, 62(4): 267-275.
- Chatzitheochari, S., and Arber, S., 2011, "Identifying the third agers: An analysis of british retirees' leisure pursuits", *Sociological Research online*, 16(4): 3, <http://www.socresonline.org.uk/16/4/3.html>
- Crimmins, E. M., Reynolds, S. L., and Saito, Y., 1999, "Trends in health and ability to work among the older working-aged population", *Journal of Gerontology*, 54B(1). S31-S40.
- Douthitt, R. A., Zick, C. D., and McCullough, J., 1990, "The role of economic and demographic factors in explaining time-use of single and married mothers", *Lifestyles: Family and Economic Issues* 11(1). 23-52.
- Fast, J. E., Dosman, D., and Moran, L., 2006, "Productive activity in later life: stability and change across three decades", *Research on Aging*, 28(6): 691-712.
- Gauthier, A. H., and Smeeding, T., 2000, *Patterns of Time Use of People Age 55 to 64 Years Old: Some Cross-National Comparisons*, Center for Policy Research, New York.
- _____, 2003, "Time use at older ages: Cross-national differences", *Research on Aging*, 25(3): 247-274.
- _____, 2010, "Historical trends in the patterns of time use of older adults", 289-310, in *Ageing in Advanced Industrial States: Riding the Age Waves* (Vol. 3), edited by Tuljapurkar, S., Ogawa, N., and Gauthier, A. H., London: Springer.
- Gershuny, J., 2003, "Time, through the lifecourse, in the family", *ISER Working Papers*, Number 2003-3.
- Klumb, P. L., and Baltes, M. M., 1999, "Time use of old and very old berliners: Productive and consumptive activities as functions of resources", *Journal of Gerontology*, 54B(5): 271-278.
- Krantz-Kent, R., and Stewart, J., 2007, "How do older Americans spend their time?", *Monthly Labour Review*, 2007(May):8-26.
- Herzog, A. R., Franks, M. M., Markus, H. R., and Holmberg, D., 1995, "Productive activities and agency in older age", 323-343, in *Produktives Leben im Alter*, edited by Baltes, M. M., and Montada, L., Frankfurt: Campus.
- Lasker, J., Collom, E., Bealer, T., Niclaus, E., Keefe, J. Y., Kratzer, Z., Baldasari, L., Kramer, E., Mandeville, R., Schulman, J., Suchow, D., Letcher, A., Rogers, A., and Perlow, K., 2011, "Time banking and health: The role of a community currency organization in enhancing well-being", *Health Promotion Practice*, 12(1): 102-115.
- Li, W., and Hung, K., 1997, "Consumption of discretionary time: An exploratory study",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4:542-550.

McKenna, K., Broone, K., and Liddle, J., 2007, "What older people do: Time use and exploring link between role particip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people aged 65 years and over",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4:273-284.

A Study on Time Allocation in Transition to Old Age -Focusing on the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People aged 45 or more-

Park, Mihee

(Seoul National University)

Byun, Geums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how middle-aged and elderly persons allocated their time in overall perspective and whether the patterns were varied by age, socio-demographic factors,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m. This study analyzed the 2009 Time Use Survey Data (17,096 time-diaries of people aged 45 or more)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using tobit regression model.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gradually decreased paid work times. Second, the patterns of time allocation were varied by ag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and household type(Agricultural/non-agricultural). Third, there wer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age and the socio-demographic factors on paid work time and leisure time. Highly educated or urban persons were likely to have less time in paid work less than other groups with increasing age. And females were likely to have less time in domestic labor and care work than males with increasing age. But they had more time in social and economic productive activities than mal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approach to analyze the time use of elderly beyond economic working time or leisure time. To establish effective ageing society polic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time allocation of elderly which divided into the social stratification.

Key words: Time Allocation, Time Use, Elderly, Time Diary, Tobit Analysis

〈기고자 소개〉

신유리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최근의 주요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경험에 대한 생애사 연구-지체와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2), 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연구』, 23(1),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질적연구임.

E-mail: cuchon2011@nate.com

김경미

승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학회』, 23(1), 2013, 공저), “장애인의 환경척도 개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중심으로”(『장애와 고용』, 23(1), 공저), “I never expected to be a disabled person in another country: The stories of migrant workers with acquired in Korea”(『Disability and Society』, 26(5), 2011), “A Comparative Examination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Disability and Society』, 26(3), 2011,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질적연구 등임.

E-mail : kyungm@ssu.ac.kr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의 주요 저서와 논문은 『나는 나쁜 장애인이고 싶다』, (삼인, 2002, 공저), 『장애와 차별』, (한국학술정보, 2007),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 (양서원, 2008), 『인권으로 보는 장애인복지』 (학지사, 2013), “한국 장애인운동의 성과와 과제”(『사회복지정책』, 21, 2005), “장애인 차별 철폐와 사회적 보장 방안”(『상황과 복지』, 20, 2005), “장애인 취업알선 서비스가 고용의 질에 미치는 영향”(『장애와 고용』, 18(1), 2008),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연구』, 23(1), 2013,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차별과 소득보장, 지역사회조직 등임.

E-mail : dcyu@deu.ac.kr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최근의 주요 논문은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척도개발연구”(『한국직업재활연구』, 23(1), 2013, 공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담인력의 직무만족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소진의 매개효과 연구”(『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 29(1), 2013, 공저), “교환이론관점에서 장애인 사회적 배제 고찰”(『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3, 2012,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연구방법론 등임.

E-mail: aslikeme@hanmail.net

박미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최근의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직장·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 분석”(『한국사회정책』, 19(1), 2012, 공저) 등이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근로연계복지, 탈생산적 복지, ‘비생산인구’의 생산활동, 생활시간연구임.

E-mail: parkmh1978@gmail.com

변금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주요 논문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노동정책연구』, 5(2), 2005), “청년층의 근로빈곤 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불안정과 고용상태가 빈곤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한국사회복지학』, 64(3), 2012)가 있음. 주요관심분야는 근로빈곤, 생애빈곤, 생활시간연구임.

E-mail : tgoldsun@naver.com